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일반) 우수작품제작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일반) 우수작품제작지원
-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5.26(목)~5.27(금),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지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5.27(금) 18:00, 대학로예술극장 회의실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일반)>

201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공연지원 연극분야 실연심사에는 이미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단체가 참여하였다. 5명의 심사위원은 이들에 걸쳐 각 단체 20분간의 시범공연을 보고, 10분간의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범공연은 최소한의 무대, 의상, 조명, 음향만을 활용하게 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다. 장식적 효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오히려 배우의 연기력, 연출 콘셉트와 전체적인 분위기 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이었다. 우수작품 제작지원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쉽게 만날 법한 작품들은 되도록 배제하고, 실험성·독창성·동시대성에서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단체의 수행능력, 계획의 충실성, 작품의 발전 가능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관객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작품일 경우에는 형식·주제·소재의 다양성을 우선했다. 이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모두 7개 단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대극장 공연 4편, 소극장 공연 3편으로 작품의 규모까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으며, 지원금액도 제작 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하였다.

시범공연에 참여한 작품들은 이미 희곡의 우수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서사와 연극성의 결합을 어떻게 보여줄 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적은 지원금과 제한된 공연환경 속에서도 대부분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몇 작품은 연출의 의도가 너무 앞서서 서사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안일한 접근으로 연출의 고민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작품일수록 희곡의 매력이 돋보였기에 아쉬움이 매우 컸다. 시범공연이 연출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희곡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확인케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작품은 극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고 있어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삶의 본질을 천착하는 철학적인 작품에서부터 현대인의 은폐된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까지 주제와 소재가 다층적이었다. 이미지 강한 실험극, 토론연극, 무협활극, 부조리극 등 형식도 다양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작가와 연출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우리 연극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 이란 기대도 하게 된다.

선정 단체들은 인터뷰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서에서 밝혔던 의도들이 선명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힘들게 시범공연을 준비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일반)분야 심의위원 일동